

후지보 텍스타일 - 염색의 수탁 비율 올려

후지보 텍스타일은 후지보 홀딩스가 관리하던 직물·니트 부문을 인계받아, 와카야마(和歌山) 공장의 수탁 가공과 중국 시장으로의 판매를 늘리고 제품 사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텍스타일의 수요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책으로 판매를 늘리려하고 있다.

와카야마 공장에서는 무지 염색을 주로 하고 있는 제1공장과 프린트를 주로 하는 제2공장이 있는데, 제1공장은 전체의 30~35%가 후지보 그룹 외의 외주로 되어 있는데, 이를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와카야마 산지와외의 컬러 버레이션을 추진하면서 후지보가 생산한 소재의 독자적인 가공을 공개적으로 외부 의뢰 가공을 추진하여 이 사업을 확대한다. 제2공장은 이미 95%까지 수탁 가공인데, 앞으로는 고야마(小山) 공장의 촉감 가공 등을 곁들여서 상품 내용을 충실하게 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산둥성의 제성(諸城) 후지보에서 생산한 텍스타일 외에 실 판매도 추진한다. 앞으로 제성과 칭다오(靑島)의 보세구(保稅區)에서는 “드라이 릴리스(Dry release)”의 스톡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순조롭게 잘 팔리고 있다. 또한 고야마 공장에서 생산한 연속 실켓사 “렌실”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늘림으로써 전년보다도 20% 증가하여 100t을 계획하고 있다.

OEM에 의한 제품 사업은 2년만에 20~30%로 확대하고 있는 제성 후지보의 생산품을 포함하여 자사 소재의 강점을 살려 증수(增收)를 계획하고 있다.

♣